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A5신/336면/9000원



푸른역사/A5신/
262면/9000원



뜨인돌/A5변형/
84면/7500원



다락원/A5신/
278면/7500원

노동자들의 눈물과 투쟁의 기록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눈물겹고 아름다운 노동자들의 희생과 결단이 있었지요.”

《아름다운 저항》 펴낸 방현석씨.

“90년대는 제게 당혹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나 이상에 대한 합의가 무너졌죠. 한편으론 화나기도 했지만 스스로 시대와 현실 앞에서 대응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뒤돌아보면서 과거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동현장의 분노와 희망을 형상화해온 《새벽출정》의 작가 방현석씨(38). 그가 《십년간》 발표 이후 4년만에 《아름다운 저항》을 펴냈다. 발품을 마다 않고 노동운동의 역사현장을 취재해 민주노총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2년 동안 연재했던 글을 모았다. 1945년 대구의 노동자 자주관리운동부터 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까지 인간다운 삶을 꿈꾸었던 노동자들의 눈물과 투쟁의 강렬한 순간을 흑백필름처럼 선명하게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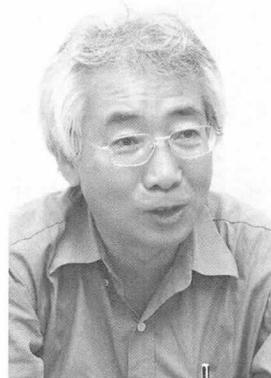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 청계천으로 구로공단으로 거제도도 태백탄전으로 쏘다녔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눈물겹고 아름다운 노동자들의 희생과 결단이 있었지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누군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했던 ‘인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현재 노동운동이 과거의 헌신성과 진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 그가 역사현장에서 얻은 깨달음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 몇편의 소설을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요즘은 386세대의 삶의 궤적을 담은 장

편소설 《낮선 시간 앞에서》(가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표현을 얻지 못한 ‘인간의 풍경’이 다음 소설의 행간에 스며 있을 것이다.

— 박천홍 기자

건축을 통해 읽는 근현대사



“우리의 근대건축은 서양의 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때문에 근대건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 자체로 역사라는 점을 인정해야죠.”

《근대 건축 기행》 펴낸 김정동씨.

1902년 정동 26번지에 세워진 손탁호텔은 개항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대건축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정동 러시아인 스타일’의 대명사인 이 호텔의 흔적은 1922년 이화학당이 세운 프라이홀을 거쳐 하남호텔로 이어진다.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김정동 교수(51)는 하남호텔이 헐리기 전,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역사적인 건물이니 헐지도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한 주인이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매일 생활하고 지나치지만, 누가 언제 만든 건물인지도 모르고 있죠. 땅값이 얼마인지, 그 자리에 고층빌딩을 지으면 얼마나 이익인지만 생각하죠.”

김교수가 최근 펴낸 《근대 건축 기행》(푸른역사)은 명동성당·서울역·화신백화점·명동 국립극장·성공회 서울 대성당 등 아직까지 남아 있거나 사라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에 담긴 역사를 재조명한 책이다.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 관련 건축물을 살핀 《일본을 걷는다》, 동서양 건축물의 문화적 의미를 다룬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에 이어지는 주제다.

“우리 근대건축은 서양의 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공사관·성당·역 등이 대표적인 근대건축인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대건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역사라는 점을 인정해야죠.”

최근 《일본을 걷는다 2》를 펴낸 김교수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곳은 《한국근대건축사》를 쓰는 일. 이 책들은 그 곳에 이르는 과정에 나온 부산 물이라는 설명. 하지만 덤으로 생긴 이 다양한 자료와 문화사적인 이야기가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다.

— 김연수 기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학상식



“생존에 필요한 지식은 모두 과학인데, 과학책은 너무 어려워요.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노빈손의 지혜가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히길 바랍니다.”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펴낸 박상준(오른쪽)·박경수씨.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의 무인도 서바이벌은 ‘모험적’이다. 지금이 20세기 말이고, 우리는 인터넷 서바이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첨단 정보통신에 대해 말하지만 진짜 생존에 필요한 기초과학에는 무관심하죠.”

박경수씨(33, 여흥·문화컬럼니스트)는 민달팽이가 사는 물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라이터 없이 불 피우는 방법, 맨손으로 식량을 구하는 요령 등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 모두 과학이라고 말한다.

“처음 책을 기획할 때는 테마별로 지식을 나열했지만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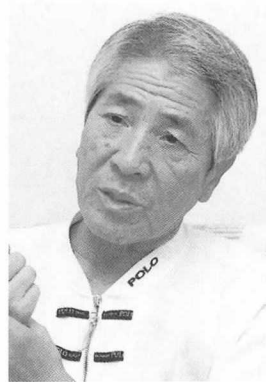
그래서 보통의 과학상식을 가진 낙천적 성격의 ‘노빈손’이 탄생했다. 인물과 상황이 설정되자 박상준씨(32, 과학컬럼니스트)가 모은 처치곤란의 자료더미는 대강 정리가 됐다. 하지만 물리학 원리를 응용하는 등 높은 단계의 내용은 많이 빠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책을 만들면서 두 사람은 사명감까지 느꼈다. 책을 펴내고 그들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동네 공원에 나가서도 이걸 먹을 수 있는 풀인가 따져보고,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아헤매고, 조난기사를 보면 당장 서바이벌 ‘견적’을 뽑아본다.

“첨단의 시대라지만 Y2K 같은 문제와 세기말의 재앙이 도래할 거라는 미신적인 위기감은 과연 인간이 알몸으로 살아갈 수 있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 이현주 기자

뉘시와 자연에 대한 단상



“진정한 낚은 손맛을 느끼는 데 만족합니다. 매운탕을 끓여먹으려 뉘시를 다니는 사람은 천렵하는 사냥꾼일 따름이죠.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겠습니까?”

《붕어를 웃기는 사나이》 펴낸 최운권씨.

“뉘시의 정신은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낚’ 스스로 자연과 동화될 기회를 만들고 또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조력 50년을 넘긴 최운권씨(70). 진정한 ‘낚’의 정신을 들려주기 위해 수필집 《붕어를 웃기는 사나이》를 펴냈다.

곡창지대 평택에서 자란 탓에 일찍이 뉘시를 배운 그가 본격적으로 산하의 뉘시터를 찾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의 미늘에 낚이면서부터. 신군부가 등장할 무렵 《월간영어》 발행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권두언에 “지식층이 깨어 있지 않으면 독재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루즈벨트의 말을 게재해 강제 폐간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71년에 이미 《붕어뉘시 연구》를 펴냈고, ‘백만인의 영어사’를 운영하며 뉘시의 과학화를 주도했다.

“붕돌의 무게와 찌의 부력을 맞추고 습성이 다른 어종에 맞는 뉘시법의 개발에는 과학이론이 적용됩니다.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흐린 물에 물고기의 먹이인 프랑크톤이 많은 법입니다.”

과학을 응용한 뉘시법이 개발되는 만큼 물고기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데, 그는 진정한 ‘낚’은 물고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낚’은 손맛을 느끼는 데 만족합니다. 매운탕이나 끓여먹으려는 사람은 사냥꾼일 따름이죠.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겠습니까?”

물지각한 ‘낚’에 의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뉘시터 휴식단체 도입을 주창하기도 했던 그는 앞으로 뉘시와 자연에 대한 수상(隨想)을 남길 계획이다. 붕어가 웃을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낚’에게 주어진 또다른 몫이기 때문이다.

— 오원진 기자